

쿠팡 대규모 정보유출 사고에…이커머스 업체들 ‘초비상’

수천억원 규모 과징금 위기…전자상거래 소비자들 불안 확산
글로벌 사업자 협업 해외 유출 우려도…긴급 보안 점검 등 분주

쿠팡에서 3000만건이 넘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하면서 비슷한 유통구조를 가진 다른 이커머스(전자상거래) 업체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쿠팡이 매년 수백억원씩을 정보보호에 투자했는데도 3000만개가 넘는 고객 계정 정보를 유출해 수천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받을 위기에 놓였기 때문이다.

2023년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에선 법 위반 시 매출액의 3%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실제 지난 4월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SK텔레콤은 1347억9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상태다.

이번 개인정보 유출에 배송 정보가 포함되면서 소비자 불안이 커지고 있는 만큼 다른 이커머스 업체들도 빠르게 긴급 점검 등 후속 대응에 나서고 있다.

특히 이번에 유출된 정보는 이름, 이메일, 전화번호, 배송지 주소는 물론 일부 주문 내역까지 포함돼 단순한 통신사 정보 유출보다 피해 범위와 파장이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배송지 정보는 일상생활과 직결돼 2차 스미싱이나 피싱 등의 악용 가능성도 제기된다.

업계 일각에서는 최근 이커머스 시장에서 글로벌 사업자와의 합작이나 협업이 늘어나는 점도 보안 관리 측면에서 주의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특히 지마켓이 올해 알리바바와 합작법인 ‘그랜드오피스홀딩스’를 설립한 사례처럼 국내 기업과 해외 플랫폼의 결합이 이뤄지면서 고객 정보가 해외로 유출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지적이다.

공정위는 기업결합을 승인하면서 그 조건으로 국내 소비자 데이터를 기술적으로 분리하고 ‘국내 온라인 해외직구 시장’에서 상대방의 소비자 데이터(이름·ID·이메일·전화번호·서비스 이용기록·검색 이력 등) 공유를 금지했으나, 해외직구 이외의 시장에서는 소비자들이 데이터 공유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여기에 알리익스프레스·테무·쉬인 등 ‘C커머스

(중국제 이커머스)’ 기업의 국내 진입이 이뤄진 상황에서 데이터 접근 범위나 국외 이전 가능성에 대한 소비자 우려도 크다.

특히 이번 개인정보 유출이 기존 업체들에서 발생한 외부 세력에 의한 해킹보다 인증토큰과 서명키를 이용한 전직 직원 소행에 무게가 실리면서 전방위적인 점검이 이뤄지는 분위기다.

구체적으로는 접근 권한 관리, 로그 기록, 모니터링 체계 등 기본적 통제 절차를 다시 점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정보보호 투자와 인력을 강화해온 ‘유통 공룡’ 이커머스 기업에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했다는 점에서 단순 ‘예산 부족’이 아닌 ‘운영 체계와 내부 통제’의 근본적 허점이 드러났다는 비판이 나온다.

쿠팡은 유통업계에서 정보기술·정보보호에 가장 큰 규모로 투자하는 기업 중 하나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정보보호 공시에 따르면 쿠팡은 올해 정보기술에 1조9171억원, 이중 정보보호 부문에 890억원(4.6%)을 각각 투자하고 있다.

정보보호 투자 규모는 2022년 535억원, 2023년 639억원, 지난해 660억원 등으로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이 부문에서 최근 4년간 투자한 규모는 2700억원이 넘는다. 쿠팡의 정보보호 부문 투자액 비중은 삼성전자와 KT 다음으로 크다.

업계에선 “대규모 예산을 개인정보보호에 쓰면서도 대규모로 정보가 유출됐는데도 5개월간 유출 사실을 감지하지 못했다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며 “경보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은 것”이라는 반응도 나온다.

/김해나 기자 khn@



광주신세계 ‘미뉴트 빠비웅 츄러스’ 팝업
광주신세계 직원이 손님에게 츄러스를 건네고 있다. 광주신세계는 오는 1월 29일까지 본관 지하 1층에서 ‘미뉴트 빠비웅 츄러스’ 팝업스토어를 진행한다. 대표 상품은 ‘윈터 츄러스 컬렉션’으로 시그니처 메뉴인 ‘딤 아몬드 초콜릿’, ‘노엘 말차 화이트’, ‘스노우 베리 화이트’ 등이 담겼다. 이 밖에 ‘클래식 시나몬 슈가 츄러스’ 등도 만나볼 수 있다. <광주신세계 제공>

3분기 소상공인 매출 전년 대비 증가…소비쿠폰 효과

평균 이익은 전분기 대비 하락

올 3분기 소상공인 매출이 전년 대비 상승하며 소폭 회복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급격한 물가 상승 및 소비 감소로 경기침체가 장기화된 반면, 올 3분기 들어 이재명 정부가 펼친 민생회복 소비쿠폰 효과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1일 한국신용데이터(KCD)가 발표한 ‘2025년 3분기 소상공인 동향 리포트’에 따르면 올 3분기 소상공인의 사업장 당 평균 매출은 4560만원으로 전년 동기과 전기 대비 각각 5.3%, 1.2% 증가했다.

소상공인들의 평균 지출은 3435만원으로 전년 보다 3.8% 늘었다. 이에 따라 평균 이익은 1년 전 보다 10.2% 증가한 1179만원을, 이익률도 1.11%

포인트(p) 상승한 24.7%를 기록했다.

다만, 평균 이익과 이익률은 직전 분기에 비해서는 4.6%, 1.5%p씩 하락했다. 이는 올 3분기 사업장 당 평균 지출이 지속 상승했기 때문으로 대부분의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들이 재료비, 사업운영비, 임대료, 인건비 등 필수 지출 부담이 커진 영향으로 분석된다.

업종별로도 대부분 업종들의 매출과 평균 이익 등이 전반적으로 소폭 상승했으며, 외식업 중 뷔페(-11.8%), 베이커리·디저트(-2.0%), 분식(-1.0%) 등 일부 업종만 하락했다.

전국 소상공인들의 금융 현황을 보면 올 3분기 국내 개인사업자 대출잔액은 726조 6000억원을 기록했다. 은행업권이 433조 5000억원

(59.7%), 비은행업권은 293조 1000억원(40.3%)으로 집계됐다.

특히 비은행업권 대출잔액에서는 상호금융업권이 232조 7000억원으로 79.4%에 달했다.

KCD는 제1·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효과도 분석했다. 1차 지급일인 지난 7월 21일부터 4주간 전국 소상공인 매출은 전년 동기과 견줘 6.4% 늘었다. 지역별로 부산(10.9%), 대구(10.5%) 등의 소상공인 매출 증가폭이 컸는데, 광주(6.3%)와 전남(1.3%)에서는 비교적 소비쿠폰 효과가 미미했다.

한편 이번 리포트는 KCD가 전국 소상공인의 7~9월 경영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쿠팡 개인정보 유출 ‘인증 토큰·서명키’ 의심 “인증토큰 있으면 로그인 없이 DB 접근 가능”…관리 부실 논란 확산

쿠팡에서 개인정보가 대규모로 유출된 원인으로 인증 토큰과 서명키 관리 부실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1일 정보통신기술(ICT) 업계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최민희 의원실에 따르면 쿠팡 고객 정보를 빼돌린 인물은 현재는 퇴사한 인증 관련 담당자로 알려졌다.

보안업계에서는 개인 정보를 유출한 직원이 인증 관련 담당자가 맞다면, 이 직원이 인증 관련 권한을 갖고 있어 퇴사 이전부터 로그인 없이 취약점에 접근하기 쉬웠을 것으로 보고 있다.

최 의원실 등에 따르면 이 직원은 퇴사 이후 개인 정보를 유출했다고 알려졌다는데, 이 과정에서 인증 토큰 서버인증키와 보안 취약점을 악용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인증 토큰은 로그인할 때 발행되는 출입증으로

통상 토큰을 갖고 있으면 시스템에 로그인 없이 접근할 수 있다.

이렇듯 인증 관련 담당자가 퇴사 후에도 인증토큰을 활용해 시스템에 접근했다면 그 배경으로는 쿠팡이 인증 토큰 생성에 필요한 서명키를 부실하게 관리한 점이 지목되고 있다.

인증 토큰은 생성과 폐기가 빠르면 1시간 이내로 완료되는 등 주기가 짧는데 이를 생성하기 위해 필요한 게 서명키다.

쿠팡이 해당 직원 퇴사 후에도 서명키를 삭제하거나 갱신하지 않았다면 해당 직원이 인증 토큰을 악용해 데이터베이스(DB) 접속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특히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는 해커 등 외부 사이버 공격에 이뤄졌던 여타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달리 내부자의 소행이라는 점에서 차별점이 있다.

/연합뉴스



농어촌공사 ‘아시아 도시경관상’ 본상 수상

한국농어촌공사(공사)는 “세화마을협동조합과 함께 국제연합(UN)-해비타트 아시아태평양 지역본부 등 국내외 5개 기관이 공동 주최하는 ‘2025 아시아 도시경관상’에서 본상을 수상했다”고 1일 밝혔다.

아시아 도시경관상은 우수한 경관 형성에 기여한 도시·지역·사업을 선정하고, 지속 가능한 도시경관 발굴을 목표로 하는 국제 공모전이다.

이번 공모전 수상작인 ‘숨비, 바다가 숨 쉬는 곳-제주 세화항’은 경관 개선과 함께 소멸 위기에 처한 어촌에 문화와 경제의 숨결을 불어넣고 자생력을 갖추게 했다는 점에서 호평받았다.

공사는 이번 수상작에서 해녀가 물질을 마친 뒤 내쉬는 숨소리인 ‘숨비’를 주제로 세화마을의 고유 자원을 보존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했다. 구체적으로 초고령화 및 지역 경기 침체, 시설 노후화 등 관광지로서 어려움을 겪던 마을에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과 해양수산부의 ‘어촌뉴딜300사업’을 연계해 추진했다.

특히 공사는 사업 전 과정에서 마을 주민을 ‘공동 설계자’로 참여시켜 실효성을 높였다. 마을 주민들과 ‘100인 원탁 토론’을 열고, ‘마을사업 전문자 전달팀’을 꾸려 주민 의견을 적극 반영했다.

그 결과 노후 항만시설, 삭막한 콘크리트 구조물 등은 숨비 소리길, 숨비 해변정원으로 변해 관광객의 눈길을 끌었다. 오페스처리장, 마을 예식장 등 방치됐던 기피·유류시설은 숨비 발레파크 등 거점센터로 새단장해 지역 공동체의 거점으로 재탄생했다.

김인중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은 “공사와 주민이 힘을 모아 지역이 가진 고유한 가치를 살리며 경관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했기에 이번 상을 수상할 수 있었다”며 “세화항과 같은 지속 가능한 경관 재생 모델을 전국으로 확산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내년부터 거래세를 코스피 0.05%·코스닥 0.20%로 상향

감액배당, 대주주는 과세 시작

내년 1월부터 코스피, 코스닥 증권거래세율이 0.05%포인트(p)씩 상향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7월 말 발표한 ‘2025년 세제 개편안’에 따라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를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시행령 개정으로 증권거래세율이 환원된다. 코스피 시장 거래세율은 현재 0%에서 0.05%로 조정된다. 농어촌특별세(0.15%)는 유지된다. 코스닥·K-OTC 시장(농특세 없음)은 0.15%에서 0.20%로 각각 조정된다. 내년 1월 1일 이후 양

도분부터 적용된다. 대주주의 조세회피 수단으로 악용된 ‘감액배당’은 대주주에 한해 과세를 시작한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3920.37 (-6.22)
↑ 코스닥	922.38 (+9.71)
↑ 금리(국고채 3년)	3.045 (+0.054)
↓ 환율(US D) 〈오후 4시 35분 기준〉	1469.30 (-1.30)

광주정보문화화정보원

‘광주 국제 e스포츠 포럼’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GICON)은 “2일 광주이스포츠경기장에서 ‘2025 광주 국제 이스포츠 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e스포츠의 교육·글로벌 협력·문화적 가치 등 다양한 의제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문화체육관광부와 광주시가 주최하고 GICON이 주관한다.

포럼은 학교와 청소년을 위한 e스포츠 교육 모델 구축, 글로벌 협력과 도시 혁신이 만드는 지속 가능한 e스포츠 생태계, 게임·인간 그리고 문화·e스포츠의 새로운 해석 등 3가지 세션으로 진행된다.

포럼에는 세계적 수준의 국내외 연사 10여명이 참여한다. 특히 세계적인 철권 프로젝트이며 ‘무릎(배재민)’ 선수와 이집트학연구소 박민수 소장을 포함한 학계·국제기관·산업계 전문가들이 연사로 나서 e스포츠 산업의 미래를 다양한 시각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포럼은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중기부, 제조업 지원 ‘소공인성장축진단’ 신설

정책 재설계·공장 스마트화 추진

중소벤처기업부는 “제조업의 뿌리인 소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전담 조직인 ‘소공인성장축진단’을 신설했다”고 1일 밝혔다.

‘소공인성장축진단’은 소공인 지원제도·정책의 재설계, 업종별 맞춤형 지원 방안 마련, 제조현장의 스마트화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병권 중기부 제2차관은 이날 전담 조직을 신설한 뒤 국내 최대 기계·금속 소공인 집적지구인 문래동의 소공인과 소공인 특화지원센터를 방문

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들었다.

소공인은 숙련된 기술을 바탕으로 제조산업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제조산업의 모세혈관으로서 사업체 수는 54만6000개사로 전체 제조업의 88.5%를, 고용 인원은 123만명으로, 전체 제조업의 24.5%를 각각 차지하고 있다.

이병권 중기부 제2차관은 “소공인은 지역 제조산업의 버팀목이자 산업 생태계를 지탱하는 핵심 주체”라며 “이번 전담 조직 신설을 계기로 소공인현장을 더욱 가까이서 살피고, 현장의 어려움이 실질적인 정책으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12월 LPG 공급가격 동결…국제가·환율 고려

국내 액화석유가스(LPG) 업계가 LPG 공급가격을 동결했다.

1일 업계에 따르면 SK가스는 12월 프로판 가격을 kg당 1187.73원, 부탄 가격을 L당 902.02원(kg당 1544.55원)으로 정했다. 이는 11월과 동일한 수준이다.

E1도 12월 가정·상업용 프로판 가격을 전달과

같은 kg당 1188.17원, 산업용 프로판을 1194.77원으로 책정했다. 부탄도 kg당 1545.55원으로 동결했다.

E1은 “국제 LPG 가격 및 환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12월 국내 LPG 공급가격을 동결 결정했다”고 밝혔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